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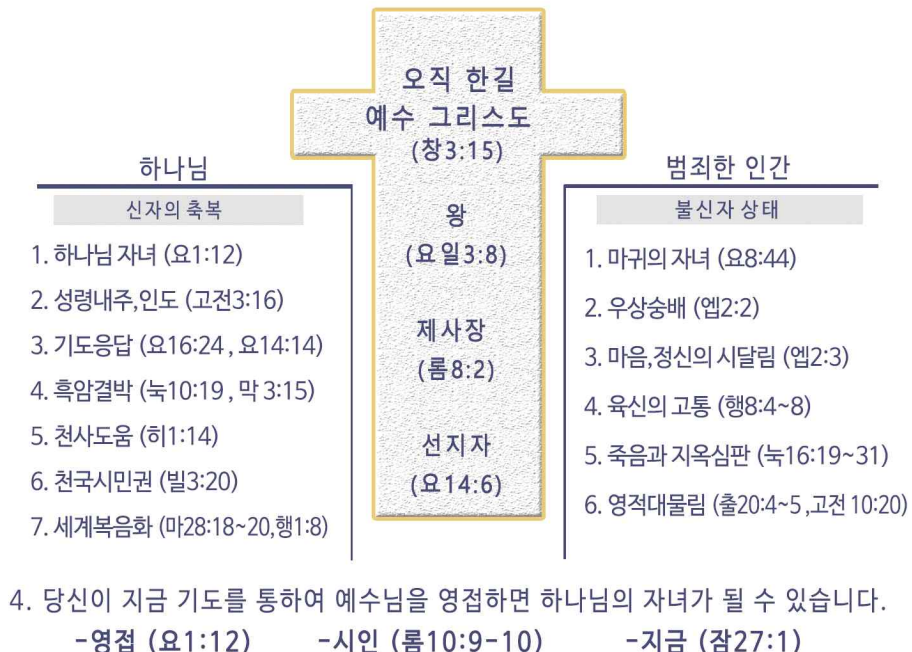


1. 원래 인간

하나님 — 창1:27~28/하나님의 형상. 축복 — 인간

2. 문제가 생김 하나님때남(창3:1-6) 사단(요8:44) 죄인(롬3:23)

3.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

- ① 구원의 확신 (요일 5:10~13) ② 기도응답의 확신 (렘33:1~3) ③ 성령인도의 확신 (잠3:5~6)
④ 사죄의 확신 (요일1:9) ⑤ 승리의 확신 (고전10:13)



지하철

- o 금천구청역 (1호선)
마을04 (문일고앞 하차) / 마을07 (홈플러스 하차)
o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5617, 5624, 51 (금천폭포공원 하차)

버스

- o 금천폭포공원 하차
5617, 5618, 5623, 5624, 5625, 5626, 5530
5531, 5713, 150, 500, 1, 3, 59-3, 51
o 문일고앞 하차
5633



빈 곳을 찾고 살리고 세워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6-38)

1. 나의 빈 곳

2. 교회의 빈 곳

3. 현장의 빈 곳

한길가는
성암교회
Sungam church, going one way
담임목사 | 정영신
Pastor, E.F Joung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5길 7

T.02-803-7720 F.02-892-7720 / www.sungam.net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2부 11:00

사회 1부 : 정영신 목사 2부 : 이연옥 장로

★는 일어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목 도 다 같 이
 ★ 찬 송 8 장 / 9 장 다 같 이
 ★ 교 독 문 58번(시편 133편) 다 같 이

사 회 :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성 도 :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 회 :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 도 :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사 회 :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성 도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88 장 / 84 장 다 같 이
 기 도 다 같 이

--- 1부 임정숙 권사 / 2부 이진규 장로 ---

성 경 봉 독 --- 1부 딤후 1:3-14 / 2부 마 11:1-19 --- 사 회 자

설 교 1부 : 후대와 자녀를 위한 헌신 정 영 신 목사

2부 :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정 영 신 목사

목 회 기 도 정 영 신 목사

헌 금 찬 송 435 장 / 94 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사 회 자

★ 찬 송 620 장(2절) / 620 장(3절) 다 같 이

★ 헌금기도/축도 정 영 신 목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십일조	이상일 박금현 김홍구 우경혜 박민규 이슬비 박정림 이진민 정세훈 무명
■주정헌금	정영신 양남수 이진규 하행란 김홍구 우경혜 박금현 박주은 손정자 양낙연 황인선 정영신 양남수 이진규 하행란 김홍구 우경혜 박금현 박주은 손정자 양낙연 황인선
■감사헌금	정영신 양남수 김용기 김홍구 우경혜 박금현 박주은 손정자 양낙연 황인선
■건축헌금	정영신 양남수 이진규 하행란 김홍구 우경혜 김기만 이현숙 박민규 이슬비 이민기 정세훈 이성심
■구역헌금	6구역
■선교헌금	이진규 하행란 이연옥 박민규 이슬비 정세훈 이성심 황인선
■평신도선교	정영신 양남수 이연옥 박선혜 정세훈 이성심 황인선
■문서선교	정영신 양남수 이연옥 정세훈 이성심 황인선
■RUTC헌금	이연옥 권숙자 이민기 이영찬 정세훈 이성심
■기타	태영아부 대학청년부

[300지교회 현황]

No	지교회명	모임시간	지교회사역자	H.P.
1	벽산지교회	목요일 오후4시	박금현권사	010-3277-3277
2	롯데캐슬지교회	수요일 오전10시30분	이연옥장로	010-7664-6242
3	탑스빌지교회	목요일 오후5시30분	안금희권사	010-9651-6963
4	우방지교회	목요일 오후4시	유부성권사	010-9003-1756
5	광진지교회	금요일 오전11시	박경선집사	010-2495-9162
6	독일지교회	월요일 오후4시	최교순권사	010-8840-5316
7	소하지교회	미정	이성심집사	010-7225-6508

섬기는 분들

담 임		정영신 목사 010-3212-3927 ys392766@hanmail.net	
장 로		부교역자	
이진규장로 010-2409-5956	권영선장로 010-8787-2109	김홍구부목사	010-4542-6780
이환미장로 010-3262-4930	이상일장로 010-6732-8240	계영심전도사	010-8291-4570
김배연장로 010-5285-6574	이연옥장로 010-7664-6242		
찬양대		사무장	윤종대 010-2913-9630
호산나	지휘 : 이슬비 반주 : 이현숙	반 주	김용희, 권은지
할렐루야	지휘 : 이성심 반주 : 한인옥 이현숙		
협력 선교사			
미창근(중국) 최은주(조지아) 정희권(필리핀)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 : 정영신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다같이
기도 최길숙권사
말씀 정영신목사
축도 정영신목사

금요 기도회

오후 8:00 인도 : 정영신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다같이
기관별찬양 태영아부
말씀 정영신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예 배 안 내

구 분		담 당	시 간	장 소
주 일	주일 1부	정영신 목사	오전 9:00	본 당
	주일 2부	정영신 목사	오전 11:00	본 당
	주일 3부	인터넷생방송	오후 2:30	본 당
	태영아부	계영심 전도사	오후 1:30	태영아부실
	유초등부	김홍구 부목사	오전 9:00	소예배실
	중고등부	김홍구 부목사	오후 1:00	소예배실
	대학청년부	김홍구 부목사	오후 4:00	본 당
	새가족부	계영심 전도사	2부 예배 후	본당 & 지하
	종직자대학원	이환미 장로	오후 1:00	본 당
	오네시모선교회	양남수 사모	2부 예배 후	소예배실
월	미션홈 & 캠프	정영신 목사	오전 10:30	소예배실
월	저녁기도회	윤종대 사무장	오후 8:00	소예배실
월	영산업인회	정영신 목사	오후 9:00	소예배실
화	저녁기도회	정영신 목사	오후 8:00	소예배실
수	수요캠프	양남수 사모	오후 1:00	소예배실
수	수요예배	정영신 목사	오후 7:30	소예배실
목	치유전도학교	정영신 목사	오후 8:00	소예배실
금	램넌트서밋스쿨	이성심집사,김지영집사	오전 11:30	소예배실
금	무속캠프	양남수 사모	오후 2:00	소예배실
금	금요기도회	정영신 목사	오후 8:00	소예배실
월-금	미스바기도모임	양남수 사모	오전 11:00	소예배실
월-금	새벽기도회	정영신 목사	오전 5:00	소예배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 십일조헌금	- 국민은행 077201-04-049781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암교회
■ 선교회헌금	- 국민은행 077201-04-049794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암교회
■ 임직헌금	- 국민은행 077201-04-060474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암교회

교 외 소 식

『성암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담당자를 만나주시면 바른 교회생활을 위한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 계영심전도사)

1. 새벽기도회(월-금 새벽 5시)는 정해진 시간에 드립니다. 미스바 기도모임, 저녁기도회, 치유전도학교, 램넌트서밋스쿨, 교회 전도캠프는 이번 주 진행되지 않습니다.
2. 핵심 방역 수칙(마스크 상시착용,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손소독 철저, 거리두기)을 준수하시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 오늘(1/24)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따라 인원 제한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대학청년부와 2구역, 2부 예배는 1, 3, 4, 5구역 구역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077201-04-049781 대한예수교장로회성암교회)
4. 오늘(1/24) 주일학교 예배는 태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통합하여 주일 오후 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대학청년부 예배는 정해진 시간(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5. 2021년도 달력을 배부해 드립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6. 2021년도 강단 곳곳이 헌신을 신청받습니다. 본당 뒤편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도 구역공과를 판매합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권당 6,000원)
8. 2021년도 2월호 기도수첩을 판매합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9.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주간집회 안내
 - 2021년 1월 26일(화) 237 화요 제자 훈련, 온라인

◎ 담임목사 동정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
현장사역	화요집회	현장사역 수요예배	현장사역	현장사역 금요기도회	핵심예배 주일준비

◎ 예배 위원 안내

1월 예배 위원	안내	헌 금	날짜	1부 기도	사회 2부 기도		수요일	금요기도회찬양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							

서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전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성암공동체라고 얘기한다. 하나의 방향으로 원네스되어 가는 것이다. 복음이 우리의 방향이요, 목적이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제복처럼 헌신은 무엇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구원 받지 않고는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헌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론

1. 헌신 이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 가장 정확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요일4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나님 떠나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롬5:8).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왜 그런가? 마16:16절에 그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막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다.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롬10:13,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중심이 복음가진 성도와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교회를 통해 도울 수 있다.

2. 초대교회 성도와 바울의 헌신

이들의 특징은 완전 복음에 답 난 사람들이다. 이 땅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들은 이것을 알았다.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드린 것이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시작되었다. 유대교의 압박 속에서도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 도왔다. 행2:44-45,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다. 요셉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의 헌신이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 행4:36-37, 요셉은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다. 그는 발을 팔아 사도들이 교회에 헌신하도록 도왔다. 안디옥교회는 흉년을 만나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교회를 도왔다. 행11:29, 안디옥교회는 흠어진 자들이 모여 세운 교회다. 전도자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 전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임을 고백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나타났다. 큰 증거 앞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했다. 고전15:10절에 본문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다.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다.

3. 우리의 헌신을 통해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 헌신하면 되는 것이다. 교역자는 말씀 운동과 기도예에 전무해야 한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중직자는 모든 일에 앞장서는 자다.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이다. 중심에 서 있는 자이다. 교회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캠퍼스의 모델이요, 주의 종에 힘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다. 우리의 기능(달란트)을 통해서도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우리의 기능, 직업을 복음에 위해 사용하면 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교사, 찬양대, 봉사도 교회를 도울 수 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헌금생활을 통한 헌신이다. 십일조, 주정헌금, 복음에 전임하는 교역자를 돕고 교회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10/1을 하라고 하신다. 십일조의 의미를 모르면 왜 십일조를 내라고 하냐고 한다. 선교헌금, 우리는 선교사님을 돕는다. 많은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면서 헌금도 해야 한다. 건축헌금, 진정한 7지역을 살리는 문화 공간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이 지역을 살릴 응답받을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감사헌금,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것이다. 새가족을 돕는 헌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가족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모른다. 적응도 안 되고 체질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작은 것에 시험 든다. 새가족을 위해 기도해줘야 한다. 시험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결론

우리의 작은 헌신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 헌신들을 통해 영적인 응답이 온다. 교회가 세워지고 캠퍼스가 일어나고 7지역을 살리고 주의 종이 일어난다. 구원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벰전2:9, 왕 같은 제사장들로 빛을 선전하는 자로 3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 억지로나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한다. 고전4:2,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했다. 주의 일을 충성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교회의 빈 곳이 채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적인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린다.

◆ 캠퍼스를 위한 기도

1. 복음에 부리내리고 영적인 전문성과 세상 정복할 기능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2. 태영아부 · 유초등부 · 중고등부 · 대학청년부 기관의 부흥 - 사역자, 교사의 성령충만을 주옵소서.
3. 해외 캠퍼스와 군 파송 캠퍼스(정현진, 이영찬, 정인웅).
- 세계복음화를 위한 미래 준비, 어느 현장에 있든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4. 문화센터 응답을 통하여서 흑암문화와의 영적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캠퍼스들을 복음 문화 속으로 이끌 수 있는 응답을 주옵소서.

새가족을 위한 기도

김대일, 이은순, 김기천, 이정형, 권금선, 권영숙, 신나래, 박청림.

환우, 연약자를 위한 기도

장정임, 서동환, 최윤자, 양낙연, 박정실, 최규남, 김경희, 이재환, 이미선, 김명자.

산업장을 위한 기도

엔드폰 아로렛 365(민기성도), 한빛건설(민형설성도), 예술촌(장지영집사), 뽕당(구광규집사)
연세피아노 학원(김용희집사), 신금 가스켓(정성철집사), 락(樂)모터스 중고매매상사(정현승청년),
인성스틸(김용기안수집사), 성업정밀(이성희집사), 아시아도매(김수영권사)

【2021년도 성암교회 구역 현황】

교구	구역	구역장	권설	구역원	교구	구역	구역장	권설	구역원
1교구	1	조규순	이순임	박순자 이성희 이연심	2교구	7	박경선	정소영	김영순
	2	유부성	최금례	손정자 권은지 황인선 최순옥 문명선 박정실 이미선		8	전명희	이경희	김수영 김윤미
	3	박금련		한복진	3교구	9	이성심	이현숙	윤성영 이슬비 김지영 엄혜정 인솔기 최유나 박소영 홍수진 우경혜 신나래
	4	안금희	최윤자	김현정 이복순 장정임		10	하행란	조희정	계영심
2교구	5	최교순	이민자 이춘매	최길숙 김은희 김경희		11	김용희	한인옥	김지연 김윤정 양남수
	6	양낙연	이진민	임인숙 장지영 이은순 임춘선		12	이연옥	임정숙	김명자 권숙자

【청소 및 식당 봉사위원 안내】

- 2021년 1월 청소 : 2 여전도회
- 식사봉사

조	명 단	조	명 단
1	조규순 이순임 김용희	6	양낙연 이진민 이슬비 임인숙 권숙자 이춘매
2	유부성 손정자 최순옥	7	김윤미 조희정 전명희
3	안금희 한복진 최교순 이성심	8	박경선 이성희 김영순
4	박금련 이경희	9	계영심 이연옥 장정임 이현숙 한인옥
5	하행란 최길숙 김수영	10	최금례 이민자 정소영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1:14下)”

◆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

1.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민족 살릴 40만 제자, 수도권 살릴 20만 제자, 지역 살릴 3000제자를 세우는 교회의 응답 받게 하옵소서.
2. 개척총회, 전도협회 - 세계복음화를 위한 지속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 다락방 20가지 전략과 RUTC - 사실적인 현장 살리는 응답, 전 세계 문화를 바꾸는 응답을 주옵소서.
4. 류광수목사님과 총회 임원, 상임위원의 목사님, 오력(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 성령충만 주옵소서.
5.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충만과 오력, 현지인 제자와 산업인 제자, 램넛트가 세워지는 응답 받게 하옵소서.

◆ 교회를 위한 기도

1.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9:36-38)
빈 곳의 고통당하는 영혼을 찾고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2가지 문제로 무너진 나의 빈 곳과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 안의 빈 곳, 무너진 현장의 빈 곳을 찾고 살리고 세우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2. 본부 워드메시지가 현장에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체현되는 응답 보게 하옵소서.
237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치유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빈 곳을 살리는 참된 기도응답의 원리를 누리며 237살릴 영적콘텐츠와 237치유할 시설, 조직, 시스템을 만들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3. 한 시간마다 강단 말씀 따라 인도 받는 성암공동체되게 하옵소서.
4. 정영신 담임목사님과 양남수사모님 - 성령충만과 오력, 성암교회와 현장을 이끌고 살릴 영권과 메시지, 종직자제자, 산업인제자, 램넛트제자, 현장전도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5. 부교역자 - 성령충만, 말은 기관과 현장을 살릴 전문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6. 종직자 - 교회와 목사님의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고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서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를 위한 예비해 두신 경제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롬16장 제자의 축복, 종직자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며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근원, 대표, 시대, 기념비, 불가역력).
7. 성도와 새가족 -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실적으로 말씀 따라 인도 받는 전도자의 삶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지며 은혜 받게, 교회와 예배의 응답, 일꾼과 제자의 축복 주옵소서.
8. 남,녀 전도회가 복음 누리는 교회 속에 기도로 하나되어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9. 오네시모 선교회 - 7지역 전 세계의 증인으로 서며 영적, 정신,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237나라 살리는 오네시모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 두기오팀 - 목회자와 교회의 사정을 전달하고 사랑을 받는 가족으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함께 동행하는 응답 누릴 수 있는 성령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11. 미스바기도 모임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증거를 주옵소서.
12. 환우, 연약한 자들 - 연약 불쌍과 기도하면서 영적, 정신, 육신 문제 치유 받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13. 치유전도학교 - 치유의 증거와 치유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4. 성전건축 - 7지역 우상문화 바꾸고 치유하는 성전, 램넛트를 훈련시키고 제자 세우는 성전, 237나라 살리는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 현장을 위한 기도

1. 7지역(금천, 관악, 영등포, 구로, 동작, 광명, 안양) 현장 정복할 300지교회, 30미션촌, 3000다락방, 3000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계획을 세워 300명 명단을 작성하고 전달하여 30명 영접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실현되게 하옵소서.
2. 미션촌, 현장전도, 목요전도캠프, 구역시스템, 다섯 기초를 통해 현장 살릴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3. 20가지 전략이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서남권 지역에 현장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되게 하옵소서.
4. 현대 힐스테이트(1800여 세대), 럭키아파트(986세대), 성지아파트(233세대), 무지개아파트(639세대), 롯데캐슬 아파트(4400여 세대) -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5. 다락방, 병원사역, 지교회, 전도운동 산업장들을 통하여 현장에 전도운동, 제자운동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6. 가정, 가문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세력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되는 가문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암강단

심지가 견고한 자 (마10:34-42)

서론

아무래도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도,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온다. 이러다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가족,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본론

1. 일단 결론부터 내려 보자 - 처음부터 나중까지 심지가 굳어야.

신앙인은 심지가 굳어야 한다. 오늘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 신앙인은 심지가 굳어야 한다. 삿갓조개라고 있다. 삿갓조개는 바위나 배 밑에 붙어서 살아간다고 한다. 워낙 강하게 붙어 있어서 손으로 떼어낼 수가 없다. 그 이유가 파도와 오랜 세월 싸워왔기 때문에 강하게 붙어 있는 습성이 생겼다고 한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위기 시대에 예수님께 더욱 더 붙어야 한다. 하나님께 더욱 더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심지가 강하다는 것은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어떤 시련,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섰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사26:3, 삼상16:7, 행13:22, 고후4:16, 겔 사삼보지 말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말라는 것이다. 속사람을 보라는 것이다. 그 영혼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보라는 것이다.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가족 중 일한 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데 원수라고 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 전도해 봐도 처음에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먼저 온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 핍박이 오는 듯하다. 34절, 겐을 주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평강의 주님께서 겐을 주러 오셨다. 겐은 싸우는 것이다. 올바르게 전도하려는 데도 칼보다 더한 어려움 오기도 한다.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기도 한다. 귀신 섬기는 시어머니와 복음 받은 딸에게 일단 갈등 온다. 영적으로 틀린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각오하고 이해될 때까지 견뎌야 한다.

2.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37절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살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올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주의 종들, 가정과 목회의 갈등에서 복음을 택해야 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헛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평신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오는 어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한 번만 넘어 서면 된다. 불신자들은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결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판단할 때 찾아온다. 그것을 전도라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핍박 자체가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 곧 전도의 기회다. 지금까지의 전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 방송인, 언론인들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하다. 전도하기 위해 고민하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요 응답이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사랑을 파악하고 있으면 정확한 타이밍이 온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다. 그때 답을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필요한 답을 주면 전도문은 얼마든지 열린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 살리는 답을 던지라.

3. 우리 자녀, 후배들이 사회생활 하는 답

40절, 예수님이 파송 하신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의 축복 가지고 현장 가면 그것이 곧 예수께서 가는 것이다. 평신도라도 참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면 예수님 사역과 같다. 41~42절, 복음 가지고 선지자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 알고부터 이 응답 받는다. 이유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 전 세계가 복음의 손에 빠져 있구나! 시대가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가 현장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행복이 없구나! 다 갖고 있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부활하신 주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결론

심지를 굳게 하여 복음 전해라. 심지가 굳지 않으면 내 앞에 오는 작은 문제에 흔들린다.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해야겠구나!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방향, 실패를 하면서 정말 복음 필요함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도 모든 동기, 계획 다 버려라. 복음 전하는 것, 작은 문제 온다고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복음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무엇이 복음을 막고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라. 진정으로 전도하면 축복의 시간표도 같이 열린다.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심지가 굳은 자 하나님께 그런 자를 쓰시겠다고 했다. 초지일관하는 자, 처음과 끝이 똑같은 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한다. 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린다.

♣ 서론

▶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를 바꾼 그 날”이다.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가? 요8:44, 사탄, 재앙, 지옥배경을 뒤바꾸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세계를 바꾸라. 그렇다면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뭔가? 보좌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그 복도 누리고 거기로 가는 것이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분과 배경을 주신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가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권세의 배경이 있다. 흑암권세를 결박할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눅10:19, 마12:28) 영적인 배경부터 되어야 응답이 오는 것이다. 영적 세계를 바꾸는 날이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잡아보라. 왜 유월절을 계속 강조하는가?

1. 유월절(그리스도) 각인 → 영적 상태는 뒤바뀐다.

▶ 유월절을 각인시켜라. 그리스도 각인되는 날 영적세계, 영적상태 바뀌고 성령의 내주 일어난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은 해방되어 나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그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 나온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 피언약 각인되는 순간 영적 상태는 뒤바뀐다.

2. 유월절 체험(뿌리) → 영적인 힘이 생긴다.

▶ 유월절 체험하라. 이때 영적인 힘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집중해서 체험하는 것이다. 주일날만이라도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다.
▶ 오늘 유월절 체험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찾아내라.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내 놓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찾아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속지마라. 걱정하지 마라.

3. 유월절 증인될 체질을 갖추라 → 영적 서밋이 된다.

▶ 유월절 증인되도록 체질 갖추라는 것이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광야에서 체험하고 뿌리 내려라. 광야에서 그리스도로 체질을 갖추라. 그리고 가라! 이때 영적 서밋이 된다. 영적 서밋이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창12:1-3, 마28:18-20, 학2:6-7) 지금까지 있었던 이 놀라운 언약을 자녀에게 각인시켜라, 뿌리내리게 만들어라. 체질 만들어서 데리고 가라.
▶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중한 유월절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후대와 전세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러 가라.

♣ 결론

▶ 영적 세계를 먼저 누려야 육신 세계를 살리고, 영적 세계를 바꾸어야 세계를 바꾸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원한데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 영적 실재를 붙으면 보좌의 축복이 먼저 온다. 하나님 나라의 일! 시간간 초월하게 된다. 그리고 참된 치유와 서밋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 붙잡는게 뭔가가 중요하다.
▶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엄청난 유월절 그리스도의 비밀, 이 응답을 진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지금 언약 잡으세요. 지금 일어난 모든 것은 끝이 아니다. 미래와 후대, 영원한 것이 남아 있다.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서론

▶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중을 계속하다보면 중요한 응답이 보인다. 저는 성전건축을 계속 기도하는 중에 237, 치유, 서밋의 답이 나오고, 그것도 빈 곳(5000종족, 치유, 후대)의 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면서 정확하게 붙잡아야 한다.
▶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 날이 뭔가? 칠칠절, 오순절을 말한다. 유월절은 끝난 것이다, 완성된 것. 수장절은 남아 있다. 천국 보좌, 미래이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영원하지만 오늘이다.
▶ 이것을 하려고 하니가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있었다. “성막(모세)” “성전(다윗)” “성전재건(학개)” 하나님이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왜 그런가? 나중에 이것이 “교회(초대교회)”라는 개념으로 바뀐다. 성막은 평생하고 관계있고, 애굽의 우상과 신상과 관계있다. 하나님이 최대의 응답을 모세에게 주었다. 성전은 블레셋, 앗수르, 아람나라와 관계있다. 성전재건은 학개라는 사람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바벨론, 바사와 관계있다. 교회는 로마와 세계복음화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다.
▶ 이것을 누리는 성전 준비해야 한다. 왜 그런가?
1) 악령의 역사를 알라.
2) 성령의 역사를 알라. → 램네프 7명의 배경을 보라. (창41:38, 삼상16:13) +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 보좌의 축복(여러분의 배경 /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본향 / 여러분이 가야 될 곳) → 마28:20, 막16:20, 행7:55-56 → 히13:8
3)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 이유를 아는 사람(오직) + 내용이 나온다(유월성) + 목표(재창조)를 알게 된다.
▶ 그러면 왜 자주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1. 유월절 → 옛 운명에서 나오는 것이다.(성령내주-치유)

▶ 그리스도는 사탄만 멸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다. 유월절은 옛 운명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아는 날로부터 성령 내주!
1) 10기적 → 복음을 볼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2) 홍해 3) 만나와 메추라기, 지팡이, 언약궤, 성막
▶ 옛 운명에서 탈출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2. 오순절 → 새 운명을 찾아내는 것이다.(성령충만-서밋)

▶ 그리스도 누리는 날로부터 성령 충만!
1) 예물 2) 제사 3) 반복이 아니라 집중이다.
▶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3. 수장절 → 시대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성령역사-237)

▶ 천국 축복 누릴 때 성령의 역사 시작된다.(행1:8)
1) 하나님의 기적 2) 치유, 서밋이 합쳐진 충격+집중 요법
3) 세계화가 되는 것이다.

♣ 결론 → 그날이 오면

▶ 237, 치유, 서밋을 사실적으로 만든 그날이 오면~
1) 광야 해방- 광야 생활 끝!
2)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을 그렇게 만들라.
3) 드디어 가나안 입국한다. ▶ 이 성전을 준비하자!